

© Special Libraries in 1973

特殊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張 一 世
(韓國開發研究院 圖書室長)

1. 머릿말

各級 도서관중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이게 發展하고 있는 館種이 特殊도서관이다.

그 뚜렷한 理由는 “科學韓國” 또는 “經濟發展”을 至上目標로 삼고 있는 國策에 힘 입은 물론이다. 近年에 이르러 급속한 經濟發展의 성공적인 달성과 더불어 重化學工業國家로서 비약하려는 國家對策은 자연히 그 方面의 特殊圖書館 發展을 추진시키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경향은 特殊圖書館 發展에 큰 轉換點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質的인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 창설되고 있는 특수도서관은 그 계획된 規模에 있어서나 圖書의 質的인 정도에 있어서나 지난날의 일반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던 도서관과는 全然 다른 次元에서 특수도서관이 고려되고 있어서 時代의 변천과 더불어 도서관의 역할이 말할 수 없이 중요시되어 오고 있다.

2. 現 况

우리나라의 圖書館法이 制定된지 滿 10년이 되는 오늘날, 지난 10년동안 특수도서관이 어떠한 成長을 해 오고 있는가를 統計를 통하여 對照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特殊圖書館 成長 現况

年度別	館 數	직 원 수	열람석수	年 間 閱 者 數	장 서 수	年 間 利 用 者 數	年 間 利 用 冊 數	豫 算(₩)
1963	66	309	2,288	—	659,087	1,259,509	739,829	—
65	71	472	2,721	43,982	623,850	1,356,501	1,500,502	20,683,918
67	99	558	3,541	81,435	912,134	1,205,276	361,137	181,042,203
69	129	699	3,147	637,012	1,418,878	637,012	539,923	457,168,135
71	142	464	3,328	121,461	1,579,574	669,631	525,680	432,812,470
73	161	729	5,288	160,364	1,787,392	2,055,758	1,691,160	774,529,810

※ 한국도서관협회 발행 한국도서관 통계 1973년판에 의함.

250%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특수도서관의 구실을 하고 있는 관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近來에 이르러서는 이의 중요성이 점차로 인식되게 됨에 따라 質的인 면에서 급속한 개선과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좋은 본보기로서는 도서관 직원수가 1971年度の 464명에서 1973年度の 729명(160% 증가)으로 증가한 가운데서 특히 專門職司書數가 激增하였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다. 즉, 전체 도서관 직원의 증가율은 160%인데 比하여 專門職數는 같은 年度사이에 90명에서 224명으로, 250%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전체 직원 수 증가율에 비할때 약 100%이상이나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히 特殊도서관에 있어서의 專門職司書의 역할이 社會的으로 認定되어오고 있다는 證左인 것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專門職司書의 地位가 점차로 확고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지적할 문제는 年間 증가冊數이다. 아무리 훌륭한 建物이나 施設, 또는 專門職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利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따라서 도서관 三大要素의 하나로서 圖書館資料가 풍부하게 되는데, 특수도서관에 있어서의 자료는 최근에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館數나 직원수가 지난 10年間 200~300% 증가한데 비하여 年間 증가책수는 1965年度에 비하여 約 400%로 증가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1969年度の 증가책수는 統計上 어떤 錯誤에 起因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年度를 除外한 그밖의 1965年度에 있어서는 꾸준한 증가를 표시하고 있어서 매우 사실과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의 증가는 豫算과 直結되고 있음은 물론인데 1965年度の 2,000萬원 代에서 1973年度에는 7億74千萬원 代로 비약한 것으로도 자료의 증가가 急増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豫算의 증가는, 近來까지는 겨우 도서관의 名目만 유지해 오던 沈滯狀態를 벗어나 도서관으로서의 機能을 점차로 발휘하듯끔 전환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중에서 年間 도서관 경상비가 1千萬원을 넘는 도서관이 26個館에 不過한데 비하여 특수도서관 중에서 年間 경비가 1千萬원을 넘는 곳이 13個館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大學도서관은 모두가 종합대학도서관이란 점으로 볼 때 특수도서관 가운데서 활발히 움직이는 도서관이 근래에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千萬원이 되지 못하는 특수도서관 중에서도 人件費를 제외한 자료구입비만을 통계에 기입한 도서관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보

면 실지로 人件費를 가산하여 1千萬원을 넘는 도서관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열람 좌석수나 열람 인원수 또는 이와 관련된 열람 도서수는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낸다는 것이 특수도서관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그 理由는 대부분의 특수도서관에 있어서는 開架制이고, 열람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연구실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곳에 자유로이 대출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계에 나타난 숫자는 대체로 추측에 의한 계산이 많은 것으로 짐작되고, 또 다른 관중에 있어서와 같이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3. 協力體制

어느 館種을 막론하고 도서관 相互間의 協力없이 만족한 奉仕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 특히 近來에 와서는 모든 圖書館人들의 일치된 見解이다. 出版物이 격증하면 격증 할수록 도서관간의 協力は 더욱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나 실제적인 必要性에 따라 相互協力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이미 오래고, 또 國立中央圖書館을 頂點으로 한 40餘個館의 協力에 의한 도서관자로 相互貸借制度的 확립 및 綜合目錄의 편찬 등이 1969年 以來로 실시되고 있고, 또 醫學圖書館 相互간의 協力, 그리고 延世大 西江大 및 梨大의 3個大學圖書館 協力에 의한 所藏雜誌綜合目錄의 편찬 등 점차로 효과적인 方向으로 協力體制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참으로 鼓舞的이면서도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수도서관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차차 그 成果를 보고 있는데, 그 좋은 예는 「科學園地」로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서울 洪陵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洪陵에 所在한 韓國科學技術研究所(KIST),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 韓國科學院(KAIS),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韓國開發研究院(KDI)의 각 도서관과 이에 추가하여 韓國原子力研究所도서관이 協力하여서 1972년부터 同 도서관에서 所藏하고있는 자료에 대한 綜合目錄을 편찬하는 동시에 相互貸借協約도 맺고 적극적으로 자료의 活用을 위한 共同努力을 펴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 6월에는 1972年末 所藏 西洋書 綜合目錄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처음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편찬, 出版되었으며, 앞으로 每年 追錄을 發刊하는 同時에 來년에는 東洋書綜合目錄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는 달리 KORSTIC과 KDI는 文獻目次連報 발

행에 協力하고 있다. 즉 1972年10月부터 KORSTIC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經營學關係 雜誌의 目次만을 速報로 발행하던 것을 KDI에서 입수하고 있는 多量의 우수한 經濟學 外國雜誌中에서 가장 평판있는 經濟學雜誌 約 80種을 선정하여 이의 目次를 經營學關係와 더불어 1973年2月부터 每月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協力は 經濟學과 經營學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동시 수록은 用者에게 가장 새로운 그 方面의 論文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되므로 매우 有益하게 活用되고 있다.

또 하나의 協力は 韓國開發研究院圖書館(KDI)이 中心이 되어 經濟관계 研究機關과의 協力體制를 추진중이라는 점이다.

協力體制는 어디까지나 같은 主題를 다루는 유사기관과의 協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KDI에서는 그러한 유사기관과의 協력을 圖謀함으로써 相互間의 利益을 최대한도로 얻기에 힘써 왔는데, 이미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西江大學校中央圖書館,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經濟人協會調查室, 貿易協會調查部, 海外經濟研究所圖書室 등과 도서관자료 相互貸借協約을 맺어 관계 직원의 자유로운 열람은 물론 자료의 相互貸借까지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기관과의 協力は 점차로 擴大시켜 나아갈 예정인데 이로인한 相互간의 자료의 活用的 폭은 대폭 넓어지게 되었다.

4. 展 望

머릿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特殊圖書館은 앞

으로 더욱 많이 늘어 날 것이며, 또 이의 重要性은 더한층 高調될 것이다.

韓國開發研究院圖書館이 AID로부터 30萬弗(120,000,000원)의 기증을 받아 經濟學關係 圖書, 雜誌를 구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韓國科學院圖書館은 역시 AID로부터 60萬弗(240,000,000원)의 借款을 얻어 圖書 및 雜誌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또 韓國教育開發院圖書館도 상당액의 자료를 近間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한 分野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方面 研究에 크나큰 도움은 물론 관계 學者들에게 큰 刺戟을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 經濟事情의 好轉과, 重化學工業의 育成, 100億弗 輸出目標을 향한 勵氣찬 노력은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한 知識의 開發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고, 따라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效果的인 奉仕를 위한 專門職의 확보, 施設의 擴張이 요청되고 있어서 특수도서관의 앞날은 매우 밝은 동시에 열성적으로 일할 일꾼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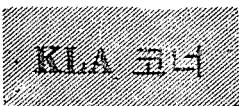
前項에서 記述한 바 있지만 앞으로의 도서관가는 加一層의 協力體制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協力體制 없이는 효율적인 奉仕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多樣한 協力體制와 이에 따른 所產物들이 多樣性있게 나올 것이 期待된다.

물론 바람직한 도서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時日이 소요되지만 우리나라 經濟産業 발전과 더불어 특수도서관의 將來는 매우 밝다 할 것이다.

“새바람”

越南戰이 한창 격렬할 즈음인 1967年 Saigon에서 의 일이다. Tu Doc거리의 Lincoln Memorial Lib.에는 男女大學生들로 모든 閱覽室을 채우고 미처 못들어가던 學生들은 뜰의 나무그늘에서 讀書에 熱中하고 있었다. 아마도 只今 쯤 越南朝野의 各部署에서 6, 7年前 한 外國軍人의 눈에 비쳤던 그 學生들이 責任있는 일에 또한 熱中하리라고 生覺된다.

이제 한장밖에 남지 않은 '73年度 月曆을 凝視하는 한 圖書館人의 胸襟엔 갖가지 思念으로 자못 錯雜하기만 한 것은 우리社會의 朝野에도 各級 教育機關을 통하여 排出된 綺羅星같은 人物들이 人類文化의 遺産이며 知識의 寶庫라고 일컫는 冊과 圖書館의 惠澤을 입으며 커왔고 生活하고 있으면서 社會의 各系層, 政府機關, 企業體 심지어는 研究機關, 教育機關에서조차 圖書館分野를 소홀히 取扱하고 等閑視하는 風潮, 讀書習慣과는 먼거리의 國民生活 등의 事例는 自然히 全圖書館人의 業務意慾을 沮喪시키고 움츠러 들게 하는 슬픈 要因이 저무는 이 해와 함께 Adieu를 告할 事情이 아닌것이 더



욱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美國의 카네기는 教育, 科學界의 振興發展을 위하여 莫大한 私財를 喜捨함과 아울러 2,800餘個의 圖書館을 建立하여 오늘날의 美國의 富強을 누리게 하는 礎石이 되게 한 일이나, 一個 조그만 圖書館의 司書였던 Lenin이 蘇聯社會의 教育과 圖書館界를 위하여 공헌한 일 등은 우리에게 좋은 龜鑑이 된다고 하겠다.

얼마 전엔 湖南, 南海 高速道路까지 開通하여 經濟, 産業立國을 標榜하는 우리 社會에도 均衡있는 社會發展을 위하여 先進福祉國家들이 보여 주듯이 投資의 效果가 確實하고 人類의 叡智를 모아 積極的으로 再擴散하는 公器으로써의 文獻情報, 圖書館界의 正常的인 開發을 위한 “새바람”이 일어 야 하겠다. 그런데 隱忍自重하며 “새바람”을 일으켜 줄 人傑을 苦待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一線의 政策立案系層으로 돌출 해 볼 것인지, 아니면 財貨를 모아 活力을 불어 넣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等第의 思念으로 한 圖書館人이 새해를 보는 눈은 그저 錯雜하기만 한 것이 事實인데 如何한 強力한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만한 衆智를 엮어 專門人의 結束된 意思를 效果있게 反映시킬 對策이 아쉽다.